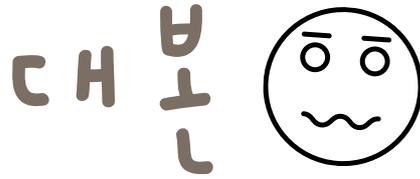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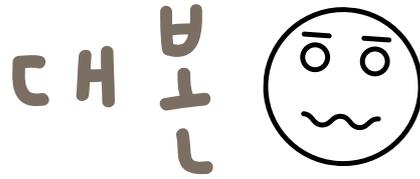
Korean Stereotypes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 선생님입니다 오늘요
제가 바로 이 동생이랑 함께 ChatGPT한테
저희가 한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물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재미있는 질문들이 많아서
같이 제 동생이랑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캐주얼하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팟캐스트를 찍어보려고 하니까요.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동생 이름은 찬수 찬수고요
제가 수야라고 가볍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물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모든 한국인의 피부가 완벽하다.
어떻게 생각해
우리 모든 사람
한국 사람의 피부가 좋은 거 같아 일단은?
일단은 나부터 아닌 거 같아
아 피부가 안 좋은가요?
한국 스킨케어 유명하잖아
스킨케어 이런 피부과 가고 그런 관리
특히 너는 남자잖아 남자인데
스킨케어를 어떻게 해 열심히 하는 편이야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닌 거 같아
어 그래? 너 주변은?
내 주변? 내 주변도
상남자가 많아서.
상남자는 뭔가요?
진짜 남자 진짜 남자? 진짜 남자
잠깐만 찬수야 스킨케어하는 남자는 그럼 가짜 남자야?
여치지 여자 아 여자야?
너 한국 남자들, 친구들이 화장하는 친구들 있어?

조금 있는 거 같긴 해
그거 어떻게 보는 거 같아?
남자가 화장하는 거
일단 화장하는게 좀 걸로 티가 나거나
티가 나거나 그러면은
본인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은데
약간 티가 안 나는 선에서
화장을 좀 하는 것 같아
티가 안 나는 정도에서 화장을 한다.
그러면 화장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친구들 중에서?
남자 남자 중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 같아
어 근데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남자가 화장을 해도.
나는 모르는 사람이 봐도 화장 했나 안 했나 정도로
약간 티도 안 나는 그 정도로 화장을 하는 것 같애
오 그렇구나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화장을 하는 남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좋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문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이거는 아까 첫 번째랑 조금 비슷한데요
바로 성형 성형입니다.
한국에서는 챗GPT가
한국에서는 다들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성형수술을 한다라고 했는데,
하루에 한 번은 약간 이렇게 과장하는 거고
그렇게 많이 한다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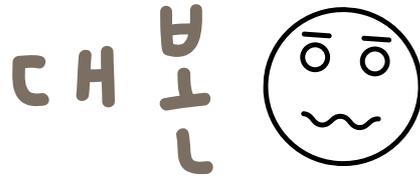
Korean Stereotypes



한국 사람들이 다 성형을 하는 것 같아?
 여자들은 좀 많이 하는 거 같은데?
 남자들도 아까 1번이랑 비슷하게
 이제 화장을 좀 좋아하거나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은
 성형도 하는 사람이 있는 거 같아
 여기 성형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 너 주변에?
 너 주변에 남자들도?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몇몇은 본 거 같아
 무슨 수술을 보통 많이 하지
 보통 이제 쌍꺼풀 눈 그 쌍꺼풀 수술하고
 코 수술
 뭐 이런 거 하나
 아직까지 내 주변에는 주변에서는 코수술은 본 적 없어
 아 코 수술은 본 적 없고
 근데 흔하다. 흔한 거 같아 수술하는게?
 나도 이제 이것저것 sns나 이런 것을 보면은
 좀 자주 있는 거 같긴 해
 자주 있는 거 같다.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성형수술을 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많이 한다.
 많이? 많이도 아니지만
 많이 아닌 것 같아?
 적당히 한다.
 적당히 아 적당히 적당히 한다
 좋습니다.
 한국인은 모두.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
 김치 없이 밥을 못 먹는다.
 김치 매번 드시나요?

나는 매번 먹진 않지만
 김치를 안 먹어도
 그래도 집에는 항상 김치가 있는 거 같아
 아 우리 심지어 김치냉장고도 있잖아
 김치냉장고도 있고
 친구들도 다 그렇지?
 김치 싫어 하는 애 있어? 너 주변에
 음.... 누나? 누나 ㅎㅎ
 네 여러분 제가 김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나밖에 없었어
 나 말고 김치 싫어하는 사람 없었어?
 김치는 싫어하는 사람은 본 적 없는 거 같아요
 내가 처음이야?
 누나 좀 많이 이상하다
 그치 좋습니다.
 오 한국 남자는 이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다 로맨틱하다.
 음.. 로맨틱?
 로맨틱하다 다정하다.
 잘 챙겨준다. 챙겨주는 거 같다?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이제 사람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
 당연히 잘 챙겨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이
 남자 주인공이랑 비슷한 거 같아?
 너는 비슷하냐?
 거기는 또 과장된 거 같고
 그래도 좀 다정하다고 하면
 나는 좀 다정한 편이지 않을까..?
 다정한편 이지 않을까..? ㅋㅋ 이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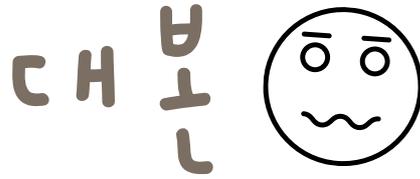
Korean Stereotypes



다정, 어떻게 다정한데
어떻게?
상대방을 좀 많이 존중해주는 편이지
존중해주고
어 나 궁금한 거 있다.
너 여자친구가 남자인 친구랑 둘이 만나서 밥 먹고 노는
거 가능해.
단둘이? 어
뭐 걱정되겠지만 뭐.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말을 잇지 못하였다
괜찮나?
괜찮나? 걱정될 거 같아?
난 쿨하니까
너는 쿨하니까
암 쿨(I'm cool)
그 한국 문화 중에 하나가 보통 이 여사친 남사친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
예를 들어서
너 여자친구가 계속
남자친구 남사친이랑 논다.
둘이 만난다.
이게 외국에서는 사실 괜찮을 때도 있거든
괜찮은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좀 더 보수적이잖아.
어떤 거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그렇게 생각해?
너 친구들도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연애를 시작하면은
다른 이성 친구를 잘 안 만나는 거지?
안 그래도 이제 솔로일 때보다는
좀 적어지지.. 적지 않을까

자주 안 만나고
근데 만나도 괜찮다.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만남이거나
그냥 둘이 밥 먹고 카페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뭔가
친군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
너 친구 너 이유 없이 만나잖아
그것도 맞긴 한데
그치? 싫을 거 같아?
나는 내 여자 친구를 믿으니까
술 먹는 거 어때?
술 먹는 거는 딱히 좀 별로인 것 같애.
영화관 가는 거 어때?
그것도.. 그것도 싫어?
잠깐만 그 밥 먹는 거 괜찮아
카페 가는 거 괜찮아
술 먹는 거
영화관 가는 거 안 괜찮아?
다 다 별로긴 한데
그래도 여자친구를 존중해 줘야 되니까.
오 괜찮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허용해 줘야 되지 않을까?
아 매주.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몰아!
매주 다른 남사친이랑 만나도 괜찮다.
그런 건 아니고
적당히
아 어렵다.
그쵸 적당히가 제일 어려워
적당히 해라 적당히.
좋습니다 다음 거는요
모든 한국 사람은 술을 잘 마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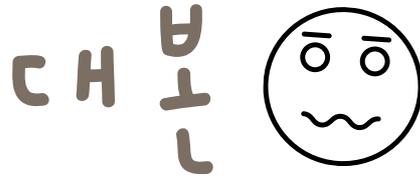
Korean Stereotypes



그거는 진짜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너 술 잘 마셔?
 아니 나도 술 잘 못 마셔
 잠만, "잘 못 마신다"의 기준이 뭐야?
 한 병 밑으로?
 소주 한 병? 어 소주 한병..
 아 보통 그러면 친구들이랑 만나면
 술을 항상 먹나?
 할게 없으면
 다 술이긴 하지.
 다 술이야? 소주를 이렇게 많이 많이 마시고
 많이 많이는 아니고
 근데 다 잘 마시지 않는다.
 다들 잘 마시는 건 아니고
 잘 마시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못 마시는 사람도 있다.
 아 그치 그치 좋습니다.
 잠깐만 나도 생각지 못한 거.
 한국에서는 모두가 스타크래프트를 한다.
 스타크래프트
 아직도 하나 오래된 거지
 맞아. 요새
 그치? 비슷하게 아마 한국 사람들이
 모두가 게임을 잘한다.
 이런 고정관념 있지 않아?
 게임을 잘한다
 어떤 거 같아?
 전반적으로.
 주변에서는 게임을 다 할 줄 알지.
 많이 한다?
 뭐 심심하거나 할게 없으면
 게임을 좀 하는 편이긴 해

다 그렇지 않아?
 한국인들만 그런 건 아닌 걸로
 어 이것도 재밌네.
 다음 거는 한국에서 모든 커플이
 커플 옷을 입는다.
 이거는 맞나요
 아니
 어 그래 너 커플옷 안 입어?
 나 커플옷 없는데
 근데 되게 많지 않아 보통은? 커플 옷 입는 사람들?
 주변에 길 걸어 다니다 보면은 몇몇은 본 것 같아.
 커플옷이 이렇게 똑같이 입나 보통은?
 똑같이 입는 경우도 있고
 뭐 트윈룩이라고 하나? 시밀러룩? 시밀러룩?!
 비슷하게 이제 맞추는 거지 색깔이랑
 시밀러룩. ㅋㅋ
 비슷하게? 아 그렇게 써 단어어?
 아 비슷하게
 보통은 커플들이 그러면 이렇게 시밀러룩을 입는 거 같아?
 커플룩 같은 거
 보통 이제 놀러가서 여행을 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커플룩이나 시밀러룩을 자주 입지.
 이상하게 보지 않지
 우리한테는 되게 당연한 그런 문화
 그리고 커플 옷을 입은 커플을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들지?
 좋아
 다음 거 다음 거를 한번 봐 볼까요?
 모든 한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
 좋아한다?
 어 아니면 잘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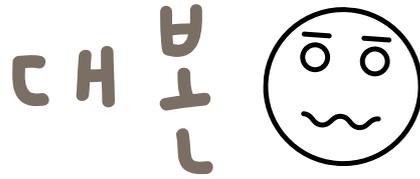
Korean Stereotypes



너의 매운 음식.. 너 매운 음식 잘 먹어?
일단 나는 못 먹는 줄 알았는데
해외 사람들이 기준으로는 잘 먹는 거 같아
그 기준이 뭐야 잘 먹는 거의 기준
나도 어디서 영상을 봤는데.
일본인들이 튀김우동을 먹고 매워 하더라고
진짜?
그걸 매워 하더라고
그게 맵대?
그 매운 맛이 있어?
그러니까 한번 보봐 나중에.
아 그래?
그런 거 비하면은 잘 먹는다고 생각해
근데 매운 거 기준이 있잖아
누나 신라면이라고 생각했거든
어때
신라면 정도는 먹을 수 있어
잘 먹어
그 신라면을 못 먹으면은 매운 거 못 먹는 사람
뭐 그렇지
누나가 보기에
신라면이랑 진라면인 거 같거든
신라면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랑
진라면을 먹는 사람
진라면 먹는 사람이 약간 매운 거 못 먹는 사람
그런 거 같아
요새 기준은 더 올라서
불닭볶음면이 기준이야.
아 진짜? 누나 불닭볶음면 절대 못 먹어
너 먹을 수 있어?
나도 못 먹는데

주변에 잘 먹는 사람들 보면
불닭볶음면을 그냥 맛있게 잘 먹더라고
막 치즈 이런 거 안 올리고
아 이제 여러분 불닭볶음면 먹을 수 있나요?
불닭볶음면 먹을 수 있으면
한국인 수준 한국인 수준이다.
우리는 이제 한국인이 아닌 거네
저희는 한국인이 아닌 걸로
네 다음 거 다음 거를 한번 봐 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안부 인사
잘 지냈어
어땠어
밥 먹었어? 라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밥에 진심인 나라 맞는 거 같아? 우리는
어 맞는 거 같아
좀 맞는 거 같아?
처음 만났을 때
친구랑 만나면
너 어떻게 해
그러면 뭐하노 밥 못나?
밥 못나. 이렇게? 밥 못나!
아 밥 못나 이렇게
아 그리고 우리 그런 애인이라 친구한테도 맨날 밥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 너도 그렇게 해?
난 안해
너 밥 사진 안 찍어서 보내줘?
난 안 찍어 보내줘
아 진짜? 근데 많이 그렇게 하지 않아?
그냥 말로 이제 '밥 먹었어?'
밥 먹는 중

Korean Stereotypes



너 그러면 밥 먹을 때마다 문자 보내? 밥 먹는 중
 밥 먹는 중
 아침 먹는 중
 점심 먹는 중
 저녁 먹는 중
 밥 먹고 있다. 그런 식으로
 너 뭐 먹는지도 다 알려 줘?
 아니 그건 이제 물으면 얘기해 주지
 우리 저희 한국은 문화가
 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알아?
 옛날에 잘 못 먹어서?
 어 맞아 맞아
 옛날에 저희가 전쟁이 끝나고 되게 가난,
 가난했어가지고
 이제 밥 먹었어가 잘 지냈어가 되는 건데
 우리 또 누나는 이 한국 사람들이
 항상 아침 먹었어
 점심 먹었어 저녁 이거 먹고 있어
 이렇게 다 알려주잖아
 그게 또 신기하다 생각했거든
 사진도 막 보내주고
 그치 한국 사람들만 가진 밥 문화! 밥 문화.
 네 그리고요 다음 거를 한번 볼까요?
 아 한국 사람들이 기념일
 그 날짜 날짜 세는 거에 진심이다
 진심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한국에서 커플들이 그런 거 있잖아.
 투투데이 투투데이랑
 100일 200일 300일 이런 거를 다 챙겨요
 너 챙겼었어 여자친구랑?

나는 옛날에 좀 챙겼던 거 같아
 투투데이 이런 거? 투투는 안 챙기고
 100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가볍게 밥 먹고
 어 선물도 주고?
 선물까지는 아니고
 그냥 가볍게 데이트하는?
 야 그럼 너 100일도 챙기고
 200일도 챙기고 300일도 챙기고
 1년도 챙기고 생일도 챙기고
 그러면 1년에...
 챙긴다는 느낌이 아니라
 만나서 뭐 같이 가볍게 데이트나하고 밥 먹고
 한국인들이 그런 날짜도 많이 세고
 카카오톡에도 이렇게 해 놔요.
 우리 사귀지 596일째 이런 거 596일째 ~
 600일 되면 또 기념일 챙기고
 너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100단위로 그럼 계속 세는 거야?
 100단위로 그냥 연락으로. 연락처로
 아 그냥 연락.
 오늘 우리 1,200일이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볍게?
 그러면 너는 이거 9,990일까지 할 거야 9,900일?
 그러면 너는 나중에 우리 9,900일이야 이런 거 할 거야
 그렇게 나중에까진 안 하겠지
 아 그래 보통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챙기지
 100단위로
 어 좀 연애 초반기에는.
 초창기때는 이제 자주 챙기는 그런 느낌
 아 그것도 참 신기하다 그럴 수 있지!